

送 年 辞



다사다난했던 경오년이 저물어가고 행운의 기대속에 신미년을 맞이함에 있어 평소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오늘의 한국통신학회가 있기까지 자기의 본업의 분망함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성성을 다 바치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새해에도 댁내에 무한한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이 회장직을 수임한지 벌써 2년이 되는 오늘, 학회의 활성화와 관련 학술 분야의 지원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대처하고 큰 과실없이 수행한 것은 유관기관과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예의인술 아오나 지면을 통해 인사를 가릅니다.

그간 학술 진흥 및 연구 진작을 위하여 년 4회의 학술지 발간을 년 6회로, 년 6회의 논문지발간을 년 12회로 중간 실시하여 국제 학회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통신 시장의 개방과 경쟁이 우리나라 통신 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통신 개방과 자유화에 관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 정치적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동 통신 기술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구촌 형성에 대비하여 위성 통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고 통신용 집적 회로 워크샵, RISC에 대한 워크샵등을 개최하여 통신 진흥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제적 교류 증대의 일환으로 중국 국제 학술회의 참석 및 중국 통신학회와 논문 교환등 학술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통신학회 회원은 3,130명으로 제작년 대비 1,096명 증가하여 양적으로 여러 학회와 비교할 때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예산 규모도 금년 12월말까지는 6억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년 1억8천만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여 국내에서 첫째가는 학회로 부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체신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989년에 충북 지부와 강원 지부를 90년에는 제주 지부를 형성하여 7개의 지부를 갖추었으며 충남 지부의 창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4명이 참석한 89년 하계학술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200여편의 논문과 450명이 참석한 90년 하계학술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불과 1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은 본 통신학회가 이처럼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역대 회장을 중심으로 각 임원진들과 회원 여러분들이 정보화 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문명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앞으로의 지식 집약적인 정보화 사회로 사회 형태가 변모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대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시대의 변천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훌륭한 학회와 기술의 개척에 관한 노력을

경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학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기술을 발전시켜 2000년대에 활짝 피게 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산적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통신학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통신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세계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韓國通信學會 會長 康 昌 彦